



4·11 총선 표밭은 지금

광양



4·11 총선 현장

민주 3선 도전에 무소속 돌풍 관심

광양 선거구는 현역인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의 3선 도전에 맞서는 당내 후보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우 의원이 수석에 나섰고, 우 의원에게 패한 무소속 김광영 후보와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며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두 후보는 우 의원의 3선을 저지하기 위해 분주히 표밭을 누비고 있지만, 우 의원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다만, 김 후보가 한나라당을 탈당, 무소속 후보로 등장한 점은 향후 선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광양지역이 무소속 강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9일 현재 광양 선거구 예비후보자는 모두 6명. 민주통합당 우윤근 후보, 무소속 김광영·김현옥·신홍섭 후보, 한나라당 김여태 후보,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 등이다.

이중 가장 앞서 있는 후보는 현역인 우 의원이다. 이어 김현옥·김광영·신홍섭 후보가 추격하는 판세다. 지난달 20일 광주일보가 실시한 4·11 총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 의원이 전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41.3%를 기록, 11.9%를 지지율을 보인 김현옥 후보를 29.4%포인트 앞섰다.

김광영 후보는 11.6%, 신홍섭 후보는 9.9%, 김여태 후보는 4.1%의 지지율을 보였다. 우 의원은 18대 총선

Table listing candidates for the 4.11 general election in Gwangyang, including names, party affiliations, and backgrounds.

* 후보는 가나다순

민주통합 유일 후보 우윤근 여론조사 앞서

'탈당' 김광영·'여성리더' 유현주 행보 주목

김현옥·신홍섭·김여태 지역민심 공략 분주

에서도 59.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표차로 김광영(18.4%)·유현주(14.4%) 후보를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우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후 당 원내수석 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 등 주요 요직을 맡으면서 당내 입지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재임기간 900회 이상 지역구를 방문하는 등 자신의 지역구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특히 19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선임된 점은 우 의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남지역 현역 의원에 대한 몰갈이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이 우 의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 의원의 17·18대 총선 득표율이 각각 56.5%·59.5%로 높았지만, 이번에는 예전 같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 의원에 맞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현옥 후보는 국회의원·시장 선거 출마 등 다양한 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 대의협력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한 뒤 분주히 표밭을 다지고 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광영 후보의 행보도 큰 관심거리다. 김 후보는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18.4%의 두 자리수 득표율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다. 하지만, 김 후보가 이번에는 한나라당 옷을 벗은 만큼 지역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 7일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신홍섭 후보는 4·5대 전남도위원과 새천년 국민회의 전남지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았다.

이처럼 광양 선거구는 현역 대 무소속 후보 간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광양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 시장후보가 당선됐던 무소속 강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지역민심의 향배가 어떻게 흐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광양을 바꾸는 젊은 리더, 진보적 정권교체'로 민주당 대의협력위 부위원장을 사퇴한 뒤 분주히 표밭을 다지고 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김종배, 남구 무소속 출마

김종배 전 민주당 국회의원(15대·비례대표)은 9일 "어느 정당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4·11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광주 남구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광주시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땅은 관료출신들의 퇴임 후 노후 대책을 일차리로 변질했고, 관료출신들이 너무 많이 집거했다"며 "지역구 8곳 중에서 5·18 대표성을 가진 1명 정도는 국회에 진출해 5·18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광주 정서를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1980년 5·18 당시 시민·학생 투쟁위원회 총위원장을 맡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4·11 총선 현장

현재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현재에 있어 표밭을 의지한 박 후보는 이날 서구 상구지구 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인 복지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현 복지정책에 대한 여론을 청취했다. 박 후보는 "복지행정 전문가로서 복지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과의 공감 확대 등을 위해 현재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이날 느낀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모임 11명, 이병훈 지지선언

'문화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 11명은 9일 "광주의 미래를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문화전문가로서 국회로 가야 한다" 이병훈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예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교수모임은 이날 오전 광주시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민의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있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차질 없이 진행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광주가 미래형 문화경제도시와 창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재균, 바른 언어상 모범상 수상

민주통합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이 9일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모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평가단이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용어 사용 여부와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 표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입장 평가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김 의원은 "말밭이 난무하는 현실이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의 만들기 위해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모범을 보여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다.

전갑길 "영유아 돌봄센터 건립"

민주통합당 전갑길 광주 광산 갑 예비후보는 9일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을 위한 24시간 영유아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광동·소촌산단입지가 위치한 광산구는 타 지역보다 맞벌이 인구가 많지만, 야간 운영 자녀 위탁시설은 없는 상황"이라며 "(맞벌이 부부·워킹맘이) 야간에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24시간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특히 "24시간 운영 영유아 보육시설이 확충되면 여성의 경제활동유무 증가·소득 증대·노동력 부족 해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혜자, 장애인 체험 선거운동

민주통합당 박혜자 서구 갑 예비후보는 9일 현 복지정책에 대한 실태 파악과 여론 청취를 위해 '장애인 체험

최경환, 11일 선거사무소 개소

민주통합당 최경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는 11일 오전 11시 북구 용봉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다. 개소식은 이날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열린다. 최 후보는 "사무소는 지역민들의 편하게 방문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북 카페 같은 분위기로 꾸렸다"며 "개소식은 유명인사 초청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갑 "제2순환도로 공영화"

이상갑 민주통합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9일 최근 통행료 인상은 라과 함께 매년 막대한 재정보전 지출임으로 시민의 형세가 남비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려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순환도로는 근본적으로 추진교통량이 잘못 예측되고 수익보장이 과도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사업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최소 수익보장을 인하를 요구하거나,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책을 이끌어내 운영권 매입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 '여성공천 15%' 논란 속

광주·전남선 누가 될까

민주통합당이 전체 지역구의 15% 이상을 여성 후보에게 할당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여성후보와 공천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성 우대도 좋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통합당이 여성후보 15%를 공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는 8개 선거구 중 1곳, 전남은 12개 선거구 중 1~2곳에서 여성 후보가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는 박혜자(서구 갑), 김성숙(서구 을), 이윤정(남구) 예비후보 등 3명이 나섰고, 전남은 국영애(장흥·영암·강진) 예비후보 1명만이 등록했다. 전략 공천선이 나왔었던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장관도 다음주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성후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합탈 미달 여성후보'가 공천을 받으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무소속



박혜자



이윤정



김성숙



국영애



장하진

후보들과의 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 여성후보 공천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여론이다.

지방선거 관계자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명분으로 문자마시 공천이 이뤄진다면 광주·전남에 무소속을 내하산식 전략 공천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낙하산식 공천을 강력 반대했다.

광양을 바꾸는 젊은 리더,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

최경환기자 ck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angureland Public Housing, listing various housing unit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Hangeok Public Housing, listing various housing unit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dvertisement for Honamland Public Housing, listing various housing units and prices.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